

대학경쟁력강화 보고회 및 오찬

기술혁신의 전략핵심은 인재양성전략으로 구체화해야

존경하는 총장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여러 사람 만나지만 오늘은 조금 긴장되고 마음이 버거운 느낌입니다. 우리사회의 오늘을 누가 끌고 가냐고 물으면 저는 시장이라고 말합니다. 정치하는 사람이 무슨 생각을 가져도 시장이 받아 주지 않으면 도리 없고 시장이 가자면 따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시장이 가장 영향력 있는 장이고 시장에서 성공하는 사람이 세상을 움직인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시장을 누가 움직이는지 보니까 지식과 기술을 가진 사람이 시장을 지배, 그래서 당장은 시장, 조금 멀리 보면 학교라고 말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학교를 주도하는 사람들이 오늘 다 모였습니다. 제가 긴장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옷깃을 여미고 말씀 듣고, 부탁도 드리고 많은 기대도 합니다.

그 동안 우리대학이 한국발전에 기여해온 공로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 지역발전전략 얘기할 때도 대학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겠다고 말했는데 틀렸다고 하는 사람이 없는 거 보면 맞는 것 같습니다. 기술혁신을 우리 한국사회의 새로운 경쟁력전략의 첫 요소로 내세우자고 했습니다. 아무도 틀렸다고 안합니다. 기술혁신은 기업에서 하는 것 같지만 독자적이 아니고 결국 대학의 학문을 손잡고 가는 것 같습니다. 기술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사람 머릿속에 있습니다. 인재를

양성해야 합니다. 기술혁신 전략핵심을 인재양성전략으로 구체화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모시고 어떻게 경쟁에서 앞서가고 그걸 토대로 우리 대학에서 양성한 사람의 지성을 토대로 품위 있고 이웃을 생각하는 공동체 의식과 사람과의 유대로 따뜻한 세상을 끌고 갈 시대를 열어가야 합니다. 아울러서 결국은 이 모든 걸 통틀어 가치를 지향하는 사회를 지향하는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게 여기 있는 총장 여러분 손에 달려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육부보고 받고 잘못된 점은 지적하고 되겠다 싶으면 격려해주고 여러분이 일선에서 실천해서 국가의 미래를 함께 열어 가는 기회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